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

한국토론대학
Debate Institute of Korea

“토론을 할 것인지 아닌지의 결정권은 유권자에게 있음을 환기하고 싶다.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 여부는 후보자끼리의 타협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토론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원하는 토론에 몸을 빼는 후보가 있다면 차라리 안목과 리더십을 길러 다음에 출마하라고 권하고 싶다.“

- 케빈리 한국토론대학 교수 -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 발족

한국토론대학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을 운영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는 유권자 국민이 대통령 후보의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과연 토론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낮습니다. 해서 토론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토론대학에서 그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목해서 볼 예정입니다.
첫째, 토론회를 기획 준비하는 주최 측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다면 TV 토론회는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과연 토론 형식이 후보자들을 잘 비교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있는가를 평가하겠습니다.
둘째, 실제 토론회가 진행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대통령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자의 역할도 평가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공정한 입장으로, 대통령 후보들을 잘 비교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토론회의 마무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주요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평가가 과연 균형 잡힌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토론대학이 만난 실제 유권자들은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토론대학에서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단 한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라고 할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 과연 정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전 기획되고 제대로 잘 진행되었는가?>를 토론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활동을 통해 과연 토론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번 평가서는 이번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평가하는 한국토론대학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6일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
케빈리 교수, 허향숙 부교수, 손은영 부교수, 최인자 부교수, 이은주 전문코치

I. **평가의 대상**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일시 :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10:10
진행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I. **평가**

■ 총평 : <고조된 긴장, 노골화된 전략...하지만 제자리 걸음>

- 배우자 리스크, 적폐수사 논란 등으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토론회. 하지만, 큰 돌발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 청년 정책(주택, 일자리, 소득보전, 재원마련, 사시부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입장, 현 정부 방역에 대한 평가, 이후 방역체계에 대한 계획, 언론중재법 및 언론의 자율규제기구 마련,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 현안 터치.
-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위가 높아짐. 결과적으로 말투가 거칠어지고, 토론회를 대하는 각 후보의 전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토론회였음. 유권자가 불편해했을 가능성. 토론 자체로는 2월 3일 토론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
- 주제 일탈, 토론 규칙 위반, 의혹에 대한 무조건 부인 등의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함.
- 진행 주최의 진행, 사회자 역할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 연출.

1. 토론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

총평 : 2월 3일 방송3사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각 후보의 특징이 더욱 드러난 토론회. 후보별 토론 전략이 노골화된 토론회.

※ 후보별 4자 총평과 4자 조언.
- 이재명 : 대략난감 -> 전략필요
- 윤석열 : 초지일관 -> 전략수정
- 안철수 : 작전고수 -> 학자탈피
- 심상정 : 심기일전 -> 여유필요

1-1. 이재명 후보

총평 : 여전히 자신의 페이스를 찾지 못한 토론회. 지난 방송3사 토론회의 연장 및 심화 모습. 2030 청년정책과 코로나 방역 정책 등 각종 정책과 현안, 쟁점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 보이나, 상대

방 입장과 내 입장을 대비하여 선명하게 강조하는 데 실패. 대장동 사건, 성남시장 시절 정책 등 집요하게 공격받자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모습과 함께 주제 일탈. 주도권 토론에서 효과적으로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 심지어는 뜨거울 것이라 예상된 <적폐수사> 논란도 언급에 그침. 타 후보에 비해 토론회에 임하는 전략과 목표가 없어 보임. 해서 대략난감.

- 형식적 측면에서는 다소 감정이 드러나 보이는 모습 연출. 본인의 전력과 부인 리스크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격에 표정과 얼굴빛이 달라짐.
- 내용적 측면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함. 예를 들어 2030 청년정책에 대해 (1) 청년기본소득, (2) 청년기본주택, (3) 은행대출 등의 정책을 설명했지만, 다른 후보들과 어떻게 다른지 부각시키는 데는 역부족. 차별금지법 논란에서도 타후보와의 ~~차이별~~차이점 부각 실패.
- 주제토론 1에서 심상정 후보에게 주제 일탈이란 지적을 받으면서, 그나마 했던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한 공격이 무색해짐.
- 주도권토론에서는 주도권토론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느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발언시간을 상대방 후보에게 양보하거나, 토론 전략이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진행.
- <적폐수사> 논란이 언급에 그치는 등 토론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데 실패.
- 모두발언, 마무리발언에서 내용이 반복됨.

※ 개선 포인트
- 토론회에 임하는 전략과 목표를~~을~~ 매번 새롭게 설정해야 함.
- 유권자에게 본인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선명하게 대비하여 설명할 필요성.
- 네거티브, 부인 리스크 등에 대한 여유 있는 태도 필요.
- 주도권토론에서 요구되는 자세를 점검할 것.
- <위기의 시대에 걸맞는 능력 있는 리더>라는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할 필요성.

1-2. 윤석열 후보

총평 : 지난 '방송3사 토론회'에 비해 한결 여유 있는 모습. 원고 의존도이나 불필요한 제스처 개선됨. 심각한 실수나 문제점은 없었음. 다만, 여전히 살짝 불안한 태도와 표정. 디테일에 모습. 토론 전략에서 공약이나 현안에 집중하기보다 여당 후보와 현 정부 비난 일색. 해서 초지일관.

-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번보다 개선된 모습. 한결 여유 있는 태도.
- 큰 실수는 없었지만, (1) '상대방 답변 최소 30초 보장' 및 '두 명 이상에게 질문하기' 등의 규칙을 매끄럽게 소화하지 못함. (2) 원고 의존도가 개선된 것은 분명하나 다른 후보에 비해 아직도 높은 편임. (3)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남.
- 내용적 측면에서는 토론 전략의 수정 혹은 재검토가 필요할 듯. 자신의 공약이나 현안을 설명하기보다는 여당 후보와 현 정부 비난에 치중. 국민의 피로감 고려하여 미래 비전 제시 필요.
- 주제토론 1은 2030 청년 정책이 주제였는데, 대장동 공세로 주제 일탈.
- 답변의 구체성 떨어짐. 예를 들어, (1) 기득권의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대책 질문에, "청년에게

넓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 공약에서 다 발표했다.” (2) 사드 추가배치 위치 질문에 “전략적인 지역” (3) 강남에 (원전) 짓는 것을 동의하냐는 질문에 프랑스 원전 이야기로 넘어가며 답변 회피 등.
- 주도권토론에서 검사 이미지 재연.
- 결과적으로, 초반기 우려했던 걱정에서는 탈피했으나, 여전히 현안에 대한 숙지 부족. 토론 전략에서는 불안한 느낌.

※ 개선 포인트 - 표정 개선 필요. - 토론 형식과 규칙에 대한 준수 필요. - 현안 숙지를 통한 답변의 구체성 강화 필요. - 네거티브 토론 전략 수정 혹은 재검토 필요.

1-3. 안철수 후보

총평 : 안정된 태도로 2월 3일과 유사한 토론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 상대에게 구체적 질문을 통해 토론을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줌. 하지만 특정 주제에 집착하여 오히려 주목도가 낮아짐. 특정 분야의 전문가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차기 지도자라는 이미지 형성 필요. 해서 작전고수.

- 형식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음. 시간 준수, 순서 준수, 경청하는 태도.
- 단조로운 말투, 굳어 보이는 헤어스타일로 인해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
- 내용적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음. 이전 대선토론과는 달라진 자신의 페이스대로 나아가고 있음.
- 전문적인 측면에서 구체적 수치를 동원하여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잘 부각시킴. (예를 들면, 방역부문, 연금부문, 예산문제 등)
- 하지만 연금제도, 노동이사제, 방역문제에 집중하느라 다양한 이슈제기에는 소홀.
- 결과적으로 특정 분야 전문가라는 이미지 고정화. 준비된 차기 지도자라는 이미지 형성에는 역부족.

※ 개선 포인트 - 다양한 이슈제기를 통한 정치인으로서의 폭넓은 식견 과시 필요. - 양당 구조 탈피의 필요성과 대안 부각 필요.

1-4. 심상정 후보

총평 : 그동안 정치토론의 경험을 드러나는 여유 있는 진행. 여전히 현안에 대한 이해도, 각종 고유명사와 수치에 대한 숙지도가 높음. 상대방 후보 태도 혹은 입장에 대한 대중적인 언어를 통한 선명한 정리로 눈길을 끎. 토론 형식 준수. 하지만 여전히 소수의 목소리 대변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함. 그로 인해 공격적 모습이 강화됨. 해서 심기일전.

- 형식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음. 시선처리, 목소리, 제스처, 시간과 순서 준수, 경청하는 태도 등이 무난했음.
- 오히려 토론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이를 전체 후보자와 사회자에게 환기하는 모습.
- 내용적 측면에서도 현안에 대한 숙지와 각종 관련 데이터의 제시가 자연스러웠음.
- 하지만, 여전히 지지율 때문인지 존재감이 떨어졌음. 예를 들어 주도권 토론에서 4명의 후보 중 가장 질문을 적게 받았음.
- 주목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공격적 모습으로 보여짐. 타후보에 대한 훈계조 발언.

※ 개선 포인트
- 여전히 한 자릿수 지지율 후보라는 이미지를 타개할 전략이 필요.
- 권력 의지, 집권 가능성 이미지를 강화할 것.
- 좀 더 여유있는 태도 필요.

2. 토론회 기획/설계/준비 평가

총평 : 무대 장치, 의제 선정을 무난했으나, 공통질문, 카메라 워킹, 사회자 진행에서 갸우뚱. 실시간 팩트 체크 장치 필요성. 여전히 외면되고 있는 유권자.

- 방송6사가 합동으로 주관한 토론이라, 접근가능성, 사전 홍보 등에서 문제가 없었음.
- 4명의 토론자를 화면 정면에 일렬로 배치한 것, 스탠딩으로 처리한 것은 무난했음.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지난 번 방송3사의 자리 배치가 더 좋았음.
- 사회자를 왼쪽 옆에 배치.
- 시간이 아예 연단에 표시되도록 해서 도움이 되었음.

- **토론회 형식**은 모두발언 1분, 주제토론 1 (각 6분, 2030 청년 정책), 주도권토론 1 (각 7분, 자유토론), 공통질문 1 (각 1분, 언론), 주제토론 2 (각 6분, 코로나 19 방역 평가와 피해 대책), 공통질문 2 (각 1분, 언론), 주도권 토론 2 (각 7분, 자유(정책)), 마무리 발언 (각 1분)의 순서. 특별히 문제가 될 형식 혹은 순서는 없었음.
- 토론자들이 순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듯 보였음.

- 공통질문 1, 2에서는 한국기자협회 관계자가 언론 관련 질문을 하는 순서로 배치. 주최자가 한국기자협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있는 순서. 하지만, 후보자 답변을 들어보니 그 질문지가 사전에 배포된 느낌이 들었음. 만약 질문지가 사전에 배포된 것이라면, 이는 토론회가 아니라 발표회가 되어버릴 위험성.
-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카메라 워킹에서 문제제기 가능성.
- 상대방의 의혹 제기에 전면 부인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실시간 팩트 체크의 필요성 부각.
- 여전히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보이지 않음.

※ 개선 포인트
- 공정한 토론회 진행 확인 필요.
- 실시간 팩트 체크 필요.
-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

3. 사회자 평가

총평: 거칠어진 토론회를 수습하기 위해 애쓴 토론. 그 과정에서 몇몇 장면이 부자연스러웠음.

- 사회자의 역할은 합의된 순서를 진행하고, 시간과 각 순서에서의 역할을 고지하는 정도로 국한하려 하였으나, 거칠어진 토론회를 수습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했던 토론.
- 필요한 경우 사회자의 직권으로 시간을 더 주거나 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토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어겼다고 생각되지 않음.
- 다만, 주도권토론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장면은 적절하지 못함.
- 그리고 질문 시간 등 사전 합의된 토론 규정에서 어긋나는 상황을 방치하여 토론자로부터 지적받는 장면 연출.

※ 개선 포인트
-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
- 사전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자의 기본 역할.
- 불필요한 의견 개진은 삼가는 것이 좋겠음.

참고자료 :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의 평가 기준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 기준

(2022년 월 일 시 분 ~ 시 분)

1. 토론 개개인에 대한 평가

	후보자A	후보자B	후보자C	후보자D	후보자E
<내용적 측면>					
각 순서에 어울리는 적절한 내용					
- 모두 발언					
- 질의 응답					
- 정리 발언					
쟁점에 대한 이해					
감정 조절					
<형식적 측면>					
시간 준수 포함 각종 규정 준수					
상대방 발언 시 경청 및 메모					
적극적 참여 여부					
적절한 시선 처리					
원고 의존도					
간결한 화법					
속도, 성량, 발음, 성조					
단정한 용모 (옷차림 등)					
적절한 제스처					
상대방, 사회자, 청중에 대한 태도					

2. 토론회 기획/설계/준비 평가

개최기관 / 장소	/
사회자명 / 사회자 평가	/
토론회장 설비	
TV 화면 구성	
토론회 방영 시간	2022년 월 일
토론자 간 실제 토론 시간	총 분
사전 의제수집과 선정	
토론회 진행방식 확정 및 고지	
유권자 참여 (질문 접수)	

3. 사회자 평가

사회자의 진행 (개입 정도)	
토론회 진행 방식 (의제와 순서)	
쟁점 부각	
양자 토론 유도	
질문 및 답변 시간의 제한	
실시간 유권자 참여	

4. 사후 평가

4-1 기존 미디어의 토론회 평가에 대한 한국토론대학의 평가

	미디어 1	미디어 2	미디어 3	미디어 4	미디어 5
토론회 평가 보도					

4-2 한국토론대학이 조사한 유권자의 토론회 평가

유권자 1	
유권자 2	
유권자 3	
유권자 4	

한국토론대학 소 개

1. 한국토론대학은?
한국 토론 교육을 개척해 온 케빈 리 교수가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한 대안 교육 기관입니다. 1년 과정의 <토론 전문가 과정>과, 3년 과정의 <인문학 디베이트 100권 과정>이 메인 컨텐츠입니다. 참고로, <토론 전문가 과정>은 현재 22기까지 진행 중입니다.

2. 케빈 리 교수는?
미국에서 토론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0년 한국에 돌아와 토론 문화 확산에 매진하고 있는 토론 교육 전문가입니다. 주요 저서로 <대한민국 교육을 바꾼다, 디베이트>, <논리학 사용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30세 이후 중국, 캐나다,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한국 이름은 이경훈입니다.

3.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은?
한국토론대학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후보 토론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올바른 평가의 틀이 없음을 발견, 그 틀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한국토론대학의 부교수진과 전문코치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연락처는?
홈페이지 : www.한국토론대학.org
카페 : cafe.naver.com/togetherdebateclub
이메일 : usaedunews@hotmail.com
전화 : 케빈리 교수 010-2256-3013